병리학계의 전설, John King 교수로부터 받은 교훈

"Dr Park도 방바닥에서 자는가?

박 남 용 교수
전남대 수의과대학(대한수의학회장)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2003년에 작고한 박동진 명창이 모회사의 청심환 광고에서 내뱉은 말로 그해 가장 회자되는 광고카피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가 하면 국학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대에는 백 낙청 교수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 이 말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병리학을 전공하는 내 입장에서는 더욱 납득이 가지 않는 말일 뿐더러 문화,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은 자승자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근래에 들어 우리 전통의 방식이 첨단 기술과 만나 세계적인 상품으로 생산되는 것을 보면서 아예 틀린 말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김치 냉장고인 것 같다. 마른 음식이 주를 이루는 서양의 경우에는 수분을 흡수하는 가스 냉각 방식이 제격이다. 그런데 물기가 많은 우리 음식에는 이 방식이 썩 잘 어울리지 않는다. 김치 냉장고는 바로 우리의 온돌 방식에서 힌트를 얻어 만든 것이라고 한다. 굳이 따지자면 냉돌 방식인 셈이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은 신발을 신은 채 호텔 방안이나 집안 거실로 들어서기 십상이다. 존 킹 교수도 예외는 아니었다. 코넬대에서 오랜 기간 병리 부검 실을 담당했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수많은 병리 사진을 담은 웹 사이트 John King's Necropsy Show and Tell 을 설립하였다. 82세 노교수 John M King(1927-

)의 자료가 대부분인 이 웹 사이트는 현재 병리학을 공부하기 위하여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3000~4000명이 방문한다. 그야말로 우리 병리학 전공자들에게는 보물창고와 같은 곳이다.

존킹 박사는 내가 2000년도에 IAEA 지원으로 세계 5개국 20여 수의과대학 방문으로 미국 코넬대에 갔을 때 더욱 돈독한 인연을 맺었다. 학문에 대한 열정, 자세, 순수성 또 연구력 등 모든 면에서 사표로 삼을 만한 분이었다. 그간 끊임없이 소식을 주고받던 중 2006년 12월 초에는 미국 아리조나주 투산에서 미국 수의병리학회(ACVP) 가 C. L. Davis 수의학 재단 이사회도 함께 개최되었는데 그곳에 초청을 받아 갔더니 거기서 그분 내외분을 또 만났다. 게다가 수의병리학계의 또 다른 coner stone 인 T. C. Jones (1912~2007) 도 94세의 나이로 이 학회에 참석했는데 그는 유명했던 병리학 교과서 "Veterinary Pathology" 의 저자이다. T. C. Jones 와의 만남은 마지막이 되었다. 2007년 12월9일 산타페의 자기 아파트 6층에서 세상을 하직한 것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 원로들은 늙은 나이에도 어째서 학회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심사숙고해 볼 일이다.

금년 4월 23일~5월 3일일 까지 안양, 서울, 전남대, 경북대에서 펼쳐졌던 미국 C.L. Davis 수의학 재단 제2차 한국 심포지엄 초청연사로 가장 먼저 떠오른 분이 바로 존 킹 교수였다. 그분 역시 수년 전부터 한국에 꼭 와보고 싶다는 뜻을 알려왔던 터라 그의 방문은 모두에게 흔쾌하고 기쁜 소식이 되었다. 그가 멀리 뉴욕주 이타카 근처 시라큐스 공항을 출발하여 애틀란타 공항을 거쳐 인천공항, 그리고 택시로 서울 호암 교수 회관에 도착한 것은 4월23일 오후 5시 무렵, 날씨가 쌀쌀하여 노교수의 건강이 염려 되었다. 1년여 전에 갑자기 발병한 심장 질환으로 좌측판막에 Pacemaker장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관에서 그를 맞은 나는 반갑게, 그리고 오랜 친구를 만난 양 장난기 어린 거수경례로 그를 맞았다. 그의 여독이 걱정되어 얼른 그의 묵직한 가방을 받아들려고 했더니 끝내 직접 들겠다고 하였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하고 싶다고 했다. 그의 가방에는 여러 가지 부검실습 도구가 들어 있어서 가볍지 않은 무게였다. 겸연쩍게 뒤를 따라 올라가니 역시 신발을 신은 채 방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저녁 7시 경에 식당으로 내려와 하얀 쌀밥에 물을 말아 간장에 먹으면서 존킹 교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왔다. "Dr. Park, 잠잘 때 방바닥에서 자는가? 침대를 쓰는가?" 이런 문화적인 질문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자칫 역효과를 불러일으켜 원래의 뜻을 흐트러트릴 수가 있다. 존 킹 박사에게는 "According to the time and circumstances"라고 가볍게 넘겼다.

미국인들은 대부분 생활 문화에 대한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자들 중에는 온돌문화를 주거문화의 최상위에 두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인간이 높은 곳에서 생활하는 것은 자연으로부터의 위협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집안에서 신발을 신고 있다는 것은 상시적으로 위험에 대체하려는 한 방편일 수 있다. 우리의 온돌에서의 삶을 그야말로 긴장 해제, 무장 해제의 공간이니 쉼의 공간이요 더불어 삶의 공간이었던 셈이다.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는 않았다. 여든둘 노구의 몸이 이국의 온돌에서 올라오는 따사로운 온기에 몸을 한번 '지져본다'면 백 마디 말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느꼈다. 문화는 결코 우열을 따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옳고 저들은 틀리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도 맞지 않다. 직접 불을 쬐는 다다미나 벽난로의 난방은 얼마나 일차적인가. 생각만 해도 눈이 맵다. 얼굴은 화끈거리고 등은 꽁꽁 어는 느낌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은 열등한 것이거나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를 뿐이다.

그 다름 속에서 단점보다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안다. 그런 결과들 중의 하나가 요즘 한창 효도선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돌 침대'와 같은 상품들이 아니겠는가. 존 킹 교수가 또 다시 내게와 3 개월쯤 지내고 싶다니 다시 한국에 오게 되면 그때 물음의 대답 대신에 '돌 침대'가 있는 훈훈한 황토 방에서 며칠 밤 편안한 잠을 선물할 작정이다.

"여학생, 그게 어느 쪽이 더 큰지 알고 있나?"

존 킹 교수가 한국에 도착하고 이틀째 되던 날 심포지엄이 시작되었다. 오전에는 Dr. Claus와 Bruce의 열강이 이어졌다. 청중석 앞자리에 앉은 존 킹 교수는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자리를 뜨지 않고 초록 집에 메모를 하며 진지하게 청강에 임했다. 젊은 후배 교수의 강의를 마치 대학 초년생처럼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득 그의 모습에 우리 학계의 현실과 겹쳐졌다. 근래 우리나라는 학회가 열릴 때면 원로 교수들은 참석을 기피한다. 가봐야 마음에 상처만 받는다는 거다. 혹시 한두 분을 모시게 되면 그들은 의례 학회의 시작을 여는 1부 행사에 간단한 인사말을 하고 학회장을 나서거나, 또는 옆으로 옮겨 오랜만에 만난 후배 연구자들과 일반적인 담소를 일정 시간만 나누는 정도다. 정년을 두 해 앞둔 나는 그런 모습에서 부러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점심 식사 후 존킹 교수의 강의가 시작 되었다. 무수한 부검을 통해서 얻은 자료와 경험에 바탕을 둔 그의 강의는 마치 실험실에서 직접 부검을 하고 있는 양 현장감과 생동감이 넘쳤다. 안양과 서울에선 전국으로 번져버린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오염된 부검 실 사정으로 그가 무겁게 들고 온 가방이 열수는 없었다.

이튿날 심포지엄은 장소를 옮겨 서울 시내 한복판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발표장에서 열리게 되었다. 반 지하의 강의장이라서 썩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교수는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후배 병리학자들이 하는 강의를 들었다.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초록집에 꼼꼼하게 메모를 하면서 경청했다.

발표회의 좌장을 맡고 있던 나는 발표 강의가 다 끝날 즈음에 예정에도 없이 그분을 연단으로 모셨다. 그리고 즉석해서 미국 수의병리학계의 앞날을 전망해 달라고 부탁드렸다. 그분은 선뜻 나오시더니 "한마디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말로 당국에 대한 비난과 수의병리학계에 대한 염려를 동시에 드러내었다. 현실에 대한 이러한 위기의식이 여든둘의 노교수에게 젊은 연구자에 필적하는, 아니 한층 더 강렬한 학문적 열정이 솟구치게 하는 원동력이 아니겠는가 짐작해 보았다.

이런 훌륭한 학자의 면모를 내가 몸담고 있는 전남대학교의 동료 교수와 후학, 제자들에게도 꼭 선보이고 싶었다. 이것은 존킹 교수를 초청해야겠다고 생각할 때부터 준비를 해 온 것이다. 다음날 존킹 교수 일행과 함께 광주행 KTX에 올랐다. 객차의 가운데에 마주보며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예약해 놓은 터였다. 세 시간 동안의 기차 여행 중에도 낯선 풍물에는 관심도 주지 않고 이번 심포지엄에 초청된 미국 병리학자들은 초록집을 놓고 지난 2일간 발표된 증례들에 대해서 계속 진지한 토론을 이어갔다. 물론 그 중심에는 존 킹 교수가 있었다. 존 킹 교수는 끊임없이 후배 학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메모를 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리고 중간 중간 후배 학자들의 여자 친구 이야기며, 자기 마누라완 떠나기 직전에 싸움을 해서 못 데려왔다는 등을 끼워 넣으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다.

다음날 전남대 산학협력관 대강당에서 필리핀, 태국에서 초청된 교수들과 함께 강의가 이어졌다. 이때도 역시 노교수는 자리를 뜨지 않고 한결 같이 경청하고 메모하면서 남의 강의에 집중하고 있었다. 드디어 오후에는 야외 실습장에서 3시간 동안 존킹 교수가 직접 진행하는 부검 실습이 있었다. 대가의 손놀림은 예술의 경지라고 할만했다. 열강에 열강이 이어지고 있었다.(사진 1)

부검실습에 열중인 전 코넬대 교수 82세의 Dr. John King

드디어 군견 세퍼드 수컷의 생식기를 검사하게 되었다. 이때 존 킹 교수의 유머러스한 진지함이 빛났다. 이런 무겁지 않으면서도 깊은 진지성들이 그를 연구뿐만 아니라 강의의 자리에서도 빛나는 스승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노교수는 짓궂게 옆에 보조하는 여학생에게 갑자기 묻는다.

"음낭을 절개하면 두 쪽의 피너스(peanuts)가 나타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말이지, 근데 여학생, 그게 어느 쪽이 더 큰지 알고 있나"하고 갑자기 질문을 하는 것이다. 정적이 흘렀다. 강의에 집중하고 있던 학생들은 그의 "의미심장한" "뜻밖의" 질문을 통해 어색함과 긴장을 풀며 마법에 걸린 사람들처럼 강의에 빠져 들었다. 병리학의 기본을 가장 명료하게, 유쾌하게 그리고 오래 동안 뇌리에 기억되도록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교과서의 문장 그 자체일 것이다.

두 눈, 두 귀, 코 등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몸은 좌와 우의 대칭, 즉 균형을 그 아름다움의 미덕으

부검 실습후 음악으로 피로를 덜어주는 CLD수의학재단회장 Dr. Bruce Williams

로 삼는다. 반면 우리의 내부 기관은 불균형과 관계맺음을 그 원리고 삼는다. 겉몸은 독립적이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팔이 잘려도 살아갈 수 있지만 내부 기관들은 하나가 없어지면 연쇄적으로 죽게 되는 관계망 속에 있다. 이 겉몸과 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사람을 포함한 수컷에게는 고환일 것이고 암컷에게는 유방일 것이다.

강의가 끝나자 Dr. Bruce가 주머니에서 손 피리를 꺼내 들어 노교수의 쌓인 피로를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 날려 보내 주었다. 그 광경은 잔잔하고 뭉클했다. 때마침 용봉 골에 번지는 노을만큼이나 아쉽고도 아름다웠다.

"다섯 개의 에피소드"

■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오이디푸스는 콤플렉스의 이름으로 20세기를 풍미했다. 이 오이디푸스가 무너뜨린 신화의 주인공이 스핑크스다. 스핑크스는 지나가는 행인에게 다음과 같은 수수께끼를 낸다.

"아침에는 네 발, 낮에는 두 발,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동물은?"

오이디푸스 이전에 모든 인간은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해서 스핑크스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오이디푸스가 '사람'이라고 답하자 스핑크스는 '신화'에서 한갓 이야기꺼리로 전락하고 만다. 그런데 정답과 오답 전에 애초에 문제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생각을 존킹 교수를 보면서 새삼하게 되었다.

존킹 교수가 한국에 도착한 다음날 한국의 고유문화를 선보여주고 싶어서 한국 민속촌을 찾았다. 심장질환이 있는 82세의 노인에게 4월의 쌀쌀한 날씨는 버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미리 민속촌 입구에서 지팡이를 하나 샀다. 동행한 초청연사 Dr. Bruce에게 넌지시 물었더니 아마 받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그래도 마음을 담아 하나를 골라 들고 존킹 교수가 탄 차를 기다렸다. 존킹 교수가 차에서 내리자 지팡이를 건넸다. 노교수는 금세 얼굴을 찌푸린다.

"Dr. Park 나 이거 필요 없는데……"

그러나 마지못해 내 성의를 뿌리치지 못하고 받아주었다. 노교수는 학문에서나 삶에서나 언제까지도 한낮의 청춘일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모두들 네 발의 아침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끝끝내 학문적 자존으로 꼿꼿이 서서 두 발로 저녁을 지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스핑크스도 오이디푸스도 몰랐던 것 같다.

■ 비밀 금고가 있는 특수 혁대

존 킹 교수 등 그때 나를 찾아 왔던 11명의 외국인 교수들의 숙소를 학교와 접근성이나 경비 절약 차원에서 금수장 호텔로 잡았으니 내가 너무했다. 객실은 보잘 것 없지만 그 호텔의 한정식만은 전라도 음식의 일미를 선사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날 금수장 호텔의 한정식 집 아리랑 하우스에서 열린 만찬에는 20여 명이 함께 했다. 네 명의 이슬람 인도네시아 교수들, 세 명의 태국인, 필리핀 사람 등이 포함되었다. 거기에 존 킹 교수와 2명의 미국 병리학자들을 포함하니 그야말로 국제적인 만찬이 되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노교수가 잡자기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빼어드는 런데 노교수의 벨트는 그게 아니었다. 혁대것이 아닌가. 우리의 경우에는 장난삼아 '뱀쇼' 혹은 '뱀장수' 흉내를 낸다던가, 노래방에서 색소폰을 부는 흉내를 내려는 익살맞은 친구들이 가끔 밸트를 이용하는 것을 본 일이 있다. 그의 중간에 지퍼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비장의 비밀금고라고 되듯이 노교수는 거기에서 2백 달러를 빼서 우리에게 일부러 보여준다.

"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비상금이요!"

화장실에 갈 때마다 혁대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항상 신경 쓰느라 스트레스 좀 받는다는 노교수의 말에 모두들 폭소를 터뜨렸다.

■ 파격적인 유머

전남대에서 야외 부검실습 강의를 마치고 일행은 식당으로 갔다. 저녁 자리의 분위기가 고조되자 존 킹 교수는 불쑥 내게 미국 할멈한테 건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자기 와이프를 "mom"이라고 부른다. 원래는 한국에 함께 오기로 한 모양이었다. 그런데 너무 먼 거리의 여행인데다 부인이 따라오면 강의에만 열중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출발이 임박해서 재미가 없을 거라는 둥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부인은 떼어놓고 온 것이다. 이 사실을 직고하면서 부부싸움에 대해 사과도 할 겸 전화를 걸고 싶다는 것이다. 존 킹 교수는 내가 핸드폰을 꺼내 당장 전화를 거는 것을 보고 놀라는 눈치다. 내 핸드폰에 자기 집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한 것이다. 긴 시간동안 여러 사람이 전화를 돌려가며 부인과 정담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전화를 끊자 내 핸드폰에 통화시간 19분, 통화요금 약 4000원이 떴다. 그걸 보며 존킹 교수는 깜짝 놀란다. 아마도 인터넷 국제전화라는 것을 모르고 너무 싸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 자리에서 Dr. Bruce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여자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그걸 본 존킹 교수가 당장에 전화기를 빼앗듯이 들더니 뜬금없이 전화기에 대고 질문을 던진다.

"당신의 이곳 남자친구 Bruce의 거시기가 어느 쪽이 더 컸지요?"

그리고는 이어서 Bruce에게 연이어 질문을 던진다.

"네 여자친구의 유방은 왼쪽이 더 크던가? 오른쪽이 크던가?"

사랑하는 사람의 몸 하나 제대로 보고 기억하지

못하고 어찌 마음까지 읽어내고 배려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비단 사랑하는 사람의 몸에 관한 이야기뿐이겠는가. 정작 우리는 내 몸의 생김생김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가.

■ 창피한 일과 핸디 노래방

전남대 심포지엄 일정 이틀간을 마치고 다음날 나는 아파트로 초청연사 모두를 초대했다. 그런데 거의 집 앞에 다 달아 그만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고 말았다. 크지 않는 접촉사고였고, 따지고 보면 잘못 또한 상대편이 큰 것 같은데 중년의 여인이 내리더니 다짜고짜 큰소리를 쳤다. 연일 일정을 소화하느라고 지칠 대로 지쳐 있는 네 명의 외국인들이 내 차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계속 악다구니를 쓰면서 나를 놔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앞뒤 없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지 싶었다. 그 실랑이의 모습은 가히 부끄러운 가장 한국적인 것 중의 하나라고 할 만하다.

집에 도착해서 간단하게 식사를 한 뒤 노래방기기를 틀어 마이크를 노교수에게 먼저 건넸다. 영어 노래도 많이 입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학자의 눈이 초롱초롱 반짝여 온다.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를 흥얼거린다. 정말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사진 3) 마침 그 기계에 입력된 노래들은 대부분 신세대 팝송이 아니라 영문 판 고전 클래식이었기 때문에 그가 아는 노래가 많이 있었다. Bruce 역시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며 분위기에 따라 장단을 곧잘 맞춰주었다.

한국 노래방기기를 즐기는 Dr. John 과 Bruce

이튿날 나는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노교수를 위해 전자상가를 찾았다. 노교수에게 한국산 핸디 노래방기계를 선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핸디 노래방기기에도 역시 많은 영어 노래도 들어 있었고 박스만 버리고 나면 가볍게 어깨에 휴대할 수 있는 가방도 있었다. 선물을 받아든 노교수는 마치 과자 종합선물세트를 받아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마냥 들떠 해맑게 웃었다. 노래방기기를 가방에 담아 어깨에 메더니 내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건넨다.

"Dr. Park, 정말 고맙다. 이 선물은 내가 평생 기억할 것이다."

■ 부검기구와 그분의 선물

미국으로 귀국한 후 약 2주가 지나 존킹 교수는 10여 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프린트된 편지를 학술 자료와 함께 내게 보내 주었다. 한국에서 보고 듣고 겪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내용으로 한 일

종의 긴 기행문이었다.

그는 전남대에서 실습 강의를 마친 뒤 부검할 때 써왔던 여러 가지 기구를 네게 증정해 주기도 했다. 또 스위스제 부검용 새 칼을 꺼내더니 손잡이 등 부분에 여러개의 ×자 표시를 하고 하얀 칠을 한 후 내게 특별 선물로 주었다. 나는 이것들을 수의대 본관 복도에 자리를 마련해 영구히 보관 전시시켜 학문에 임하는 존킹의 자세와 그 뜻을 후학들에게 전할 생각이다.

전남대에서 진행되었던 심포지엄의 점심시간이 끝나고 잠깐 쉬는 동안에 나는 존 킹 박사의 친필을 받고 싶어졌다. 그래서 노교수에게 내게 줄 수 있는 한마디 좌우명을 적어달라며 화선지와 붉은색 오일 펜을 건넸다. 존킹 박사는 흔쾌이 허락하며 다음과 같이 써 주었다.

If a task has once begun, Never leave it til its done

Be it a labor great or small, Do it well or not at all

A. D. Davis

존 킹 교수로부터 받은 교훈은 많다. 배움에는 노소가 따로 없는 것이어서 노교수도 젊은 교수의 강의를 경청해야 하는 법. 나이 먹어서도 학술회의에는 참석해야하고 참석했으면 대접을 잘 안해줘 속이 상하더라도 강의장소를 떠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나 역시 전남대학교에서는 최 연장자인 만 65세 먹은 노교수다. 강의를 할 때는 노교수의 관록과 위엄으로만 강의를 하지 말고 적절한 유머와 위트를 동원하여 학생들을 완전히 장악해야한다. 그래야 교단의 멋진 신사인 것이다.

그분이 남긴 이런 교훈은 대학 강단의 우리들에게는 더 소중한 것이라곤 없다고 생각한다.

며칠 전엔 친필로 쓴 석장의 편지와 함께 수많은 병리 코닥크롬 슬라이드와 테이프 그리고 CD 소포를 보냈다. 무척 갈겨 쓴 서양 사람들의 편지는 읽어내기가 힘들다.

석 달쯤 마누라랑 네 학교에 체재하면서 어떤 보수도 안받고 강의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큰 주제여서 나는 다음과 같은 답장을 썼다.

"당신 같은 저명한 병리학계의 거목은 이곳 한국 뿐 만아니라 아시아권 주요 8개국을 순회하며 강의해야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촬영하면서 기록으로 남겨야한다. 이 사업은 내가 창립한 아시아 수의 축산 진흥재단(AFAVAS) 에서 주선하겠다"